

정용진 “안주하지 않고 발전… 지금의 트레이더스 만들어”

〈신세계그룹 회장〉

올해 세번째 현장경영 행보
명절 앞두고 트레이더스 찾아
‘매장안전·품질관리·혁신’ 주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설 명절 연휴를 일주일 앞둔 9일 트레이더스 인천 구월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용진 회장은 명절 대목을 맞아 분주한 현장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고객들이 많이 찾는 명절 기간인 만큼 매장 안전과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회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스타필드마켓 죽전점과 스타필드 빌리지 운정을 찾은 데 이어 올해 세 번째 현장 경영 행보다.

이날 정 회장이 찾은 구월점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전국 최대 규모의 트레이더스 점포다. 트레이더스의 핵심 가치인 ‘알뜰 장보기’에 다양한 테넌트(임대 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레이더스를 돌아보며 차별화된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장)와 로드쇼를 결합해 고객 경험을 강화한 진화형 모델로 꼽힌다. 오픈 이후 역대 점포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으며, 현재 하남점에 이어 전국 매출 2위를 기록하며 인천의 ‘장보기 성지’로 자리

잡았다. 정 회장은 별도로 마련된 노브랜드 매장과 식당가, 신선식품 코너 등을 꼼꼼히 둘러봤다. 명절 선물세트 코너에서는 “트레이더스가 알뜰하게 선물을 장만하

려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며 “믿고 살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제공한다면 우리 점포에 대한 이미지는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오픈런’ 현상을 빚으며 화제가 된 ‘두쫘꾸’ 로드쇼 현장도 살폈다. 9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하루 2000개 물량을 개당 5000원대에 선보이고 있다. 구월점은 개점 당시 대형 요트 로드쇼를 비롯해 캠핑카 로드쇼 등 차별화된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고객 발길을 붙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트레이더스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레이더스는 고물가 시대 ‘가성비’ 수요에 힘입어 2025년 3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1~3분기 누계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27.2% 증가하며 이마트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정 회장은 “대형마트가 호황을 누리던 16년 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유

통 시장 변화를 면밀히 살펴 만든 것이 지금의 트레이더스”라며 “당시에는 생소한 창고형 할인점 모델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독심 있게 혁신을 지속한 결과 지금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오늘 와서 보니 트레이더스가 한층 진화한 것이 느껴진다”면서도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며, 찾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발전시켜야 치열한 유통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거듭 혁신을 주문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트레이더스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말 의정부에 신규 점포를 선보일 계획이다. 2010년 1호점인 용인 구성점을 시작으로 국내 창고형 할인점 시장을 개척한 트레이더스는 지속적인 점포 확장과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효성중공업, 美 전력시장서 7870억 규모 전력기기 수주

단일 프로젝트 기준 역대 최대 규모
美 765kV 시장 주도적 위치 선점
조현준 회장 주도 美 중심 전략 성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효성중공업이 미국 전력시장에서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수주를 기록했다. 초고압 전력기기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현지 생산 기반을 앞세운 미국 송전망 시장 공략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약 7870억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 등 전력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전력기기 기업 가운데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지난해에도 효성중공업은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에서 765kV 초고압변압기와 800kV 초고압차단기 등 전력기기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도 대형 수주를 이어가며 미국 765kV 시장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의 영향으로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가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요 전력사업자들은 대용량 전력을 장거리로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765kV 송전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765kV 송전망은 기존 345kV나 500kV 대비 송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효성중공업은 현재 미국 송전망에 설치된 765kV 초고압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해 왔으며 2010년대 초부터 해당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765kV 초고압변압기와 800kV 초고압차단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며 대형 송전망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주는 조현준 회장이 주도해 온 미국 중심 전략의 성과로 평가된다. 조 회장은 미국 에너지·전력 업계 최고경영진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효성중공업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여왔다.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지 생산 거점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선제적 투자를 이어왔다.

조 회장은 2020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 인수를 결정한 이후 증설을 포함해 총 3억달러(약 4400억원)를 투자했다. 멤피스 공장은 현지 공급망 주도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증설이 완료되면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CJ제일제당, 사업·재무·조직 전면혁신 선언

윤석환 대표 “파괴적 변화·혁신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나야”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사진)는 10일 “남떠러지 끝에 서 있는 절박한 위기 상황”이라며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파괴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완전히 다른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윤 대표는 이날 전 임직원에게 보낸 ‘우리에게 적당한 내일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CEO 메시지를 통해 “4년간 이어진 성장 정체 끝에 지난해 순이익 적자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이는 일회성 악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와 조직에 대한 생존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취임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낸 배경에는 단순한 실적 부진을 넘어, 사업 모델과 조직 운영, 알하는



방식 전반을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작은 변화로는 이과고를 넘을 수 없다”며 ▲사업구조 최적화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선 ▲조직문화 재건 등 전사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구조와 관련해 그는 “그동안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라는 이름 아래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까지 안고 있었다”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승산이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푸드 해외 신영토 확장을 위한 글로벌 전략 제품(GSP) 등과 현금 창출력이 높은 사업에는 적극 투자해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금 흐름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

다”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예산과 ‘납들도 하나’ 식 마케팅 비용, 실효성이 낮은 연구개발(R&D) 투자까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비핵심 자산을 적극 유동화해 성장 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냈다. 윤 대표는 “임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CEO’보다 회사를 살리는 ‘이기는 CEO’가 되겠다”며 “느슨한 문화를 견여내고 생존과 본질에 집중하는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선택지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현재의 불편함이 미래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대표이사들이 변화가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각 사업과 조직별로 구체적인 혁신 실행 방안 마련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T이사회, 사외이사 3인 교체 결정

이사회 운영 연속성·투명성 핵심

KT이사회가 결국 사외이사 3인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KT 이사회추천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ESG, 미래기술, 경영 분야의 사외이사 후보 3인을 확정해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KT 이사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추천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과 ‘투명성’이다. ESG 분야에는 윤종수 현 KT ESG위원장이 재추천되었으며, 미래기술 분야에는 김영한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가, 경영 분야에는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이사 이름이 올랐다.

반면 회계 분야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식으로 남겨둔 뒤 내년 주총에서 선임할 예정이다. 이로써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 중 윤종수 이사만 생존했으며, 안영균·최양희 이사는 물러나게 됐다.

이사회는 기존의 대규모 동시 교체 방식인 ‘집중형 구조’를 탈피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교체하는 ‘분산형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경영진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외적인 불확실성 해소에도 공을 들였다. 이사회는 주요 보직자 인사 규정이 정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의 지적을 수용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반영해 사외이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란이 된 이승훈 사외이사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제3의 독립 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김서현 기자 seoh@